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8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 증시, 중재안 등장에 낙폭 축소..혼조 마감

- 미국 증시, 마감 앞두고 낙폭 줄여 혼조 마감: 다우 -0.18%, 나스닥 +0.10%
- 임박한 데드라인..파키스탄 중재안 등장에 또 '연장' 기대
- 전쟁 여파에 미국 단기 기대인플레 1년래 최고

Summary

미국 증시 혼조 마감

4월 7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세 출발했으며 장 중 관련 소식의 방향에 따라 출렁임. 다만 마감을 앞두고 중재국 파키스탄이 협상 시한 연장을 제안했으며 이란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만회해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18% 하락한 46,584.46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08% 상승한 6,616.85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10% 상승한 22,017.85에 거래를 마쳤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0.17% 소폭 상승 마감함. S&P500과 나스닥은 이로써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6.83% 상승한 25.82를 기록.

(다우 -0.18%, 나스닥 +0.10%, S&P500 +0.08%, 러셀2000 +0.17%)

D-DAY..또 연기될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란과의 협상 시한인 4월 7일이 도래하자 시장 심리는 초반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양상. 주가 지수는 하락하고 유가는 상승했으며 달러와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흐름.

개장 전 이란의 주요 에너지 시설이 몰려있는 하르그섬을 미국이 공격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란은 미국이 예고한대로 에너지 인프라와 교량을 모두 파괴할 경우 이란 역시 사우디 아라비아의 얀부 파이프라인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시설 등을 목표로 타격할 것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위축되던 투자 심리는 파키스탄 총리가 "우리는 모든 교전 당사자가 2주간 전면적인 휴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란 형제들에게도 선의의 조치로서 동일하게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며 다소 완화.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와 함께 외교가 그 과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을 2주 연장해줄 것을 요청. 이란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백악관 역시 대통령이 이 제안을 인지했으며 곧 답을 내놓겠다고 밝힘.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재국으로 이른바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물러설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읽힘. 이후 시장은 다시 한 번 기대를 반영. 주가지수는 낙폭을

줄여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고 유가도 오름폭을 줄여 종가 산출 후 하락하기도 했음. 달러는 약세 전환했으며 국채금리도 대체로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 전환함.

미국 단기 기대인플레 1년래 최고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의 영향은 단기 기대 인플레에 반영되고 있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기대 설문조사(SCE)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은 3.4%로 나타남. 이는 전달 3.0%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4월 3.6% 이후 가장 높은 수치. 1년 기대 인플레의 이 같은 상승은 결국 휘발유 가격 상승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실제 소비자들은 1년 후 휘발유 가격이 9.4% 상승할 것이라 전망. 이는 전달 대비 5.3%p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같은 기간 식품 가격도 6% 급등할 것으로 전망.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0.1%p 상승한 3.1%로 집계됐고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0%로 보합. 모든 구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0%를 웃돌지만 중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대비 최근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함. 그는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기존 관세로 인해 급등했던 물가가 곧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효과가 사라지기도 전에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이 덮쳤다”며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현재 안정적이지만 훌륭하지는 않은 수준의 고용 시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 즉 전쟁으로 인해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현재 상황은 경기를 부양해야 할지 아니면 진정시켜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연준이 현재 상황에 대응할 명확한 정책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현 3.50~3.75%의 기준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그는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며 절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

한편 이 날 발표된 2월 미국 내구재 수주는 전달 대비 1.4% 줄어들어 시장 예상을 하회함.

IMF 총재 “이제 모든 길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낮은 성장으로”

IMF도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와 성장 전망에의 영향에 대해 경고함.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원유 공급이 약 13% 감소하고 원유와 가스 선적 차질의 영향이 헬륨이나 비료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전쟁이 신속히 끝나고 이후 회복이 빠르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대적으로 소폭 하향하고 인플레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나아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힘. IMF는 오는 14일 ‘세계 경제 전망’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

특징종목

브로드컴, 인텔 호재성 이슈에 강세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6.21%)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1.82%)과 구글의 차세대 맞춤형 텐서처리장치(TPU)를 개발,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급등. 브로드컴은 공시를 통해 최장 2031년까지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랙에 사용될 네트워킹과 기타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힘. 한편 브로드컴은 앤트로픽이 2027년부터 자사를 통해 3.5GW 규모의 AI 컴퓨팅 용량을 이용한다고 밝혔으며 앤트로픽 역시 "구글, 브로드컴과 TPU 용량 관련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인텔(+4.20%)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1.75%) CEO의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인 테라팹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 인텔은 초고성능 반도체를 대규모로 설계, 제조, 패키징하는 인텔의 역량이 연간 1TW의 연산 능력을 생산해 AI와 로봇 공학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목표를 가속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

영국의 칩 설계 업체 ARM 홀딩스(-3.30%)는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한 가운데 장 중 7% 이상 하락하기도. 모건스탠리는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에이전틱 AI로부터의 재무적 이익 증가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으로 단기 실적에 대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힘. 다만 목표주가는 13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0.19%)은 미국 정치권이 중국에 대한 구형 심자외선 노광장비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 매치 법안을 발의해 초반 2% 이상 하락하기도 했지만 낙폭 만회, 소폭 반등해 마감.

애플, 테슬라는 악재성 이슈에 하락

애플(-2.07%)이 빅테크 내 가장 큰 폭 하락. 닛케이 아시아가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위한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영향. 양산 및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닷새만에 주가도 약세 전환. 다만 블룸버그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모델이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전해.

테슬라(-1.75%)는 사흘 연속 하락했는데 전일 JP모건이 연간 주당순이익(EPS) 전망을 기존 2달러에서 10% 하향한 1.8달러로 제시하는 한편 "테슬라 주식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이어지는 부담으로 작용함. 테슬라 주가는 이 날 장 중 지난 9월 이후 약 7개월간 지켜온 심리적 지지선 34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음. 다만 대표 강세론자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최근 주가 약세를 틈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가 기준 340달러는 수성.

고유가: 여행·항공·크루즈 ↓, 에너지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용 증가와 수요 약

화 우려에 크루즈 운영 업체와 항공사 주가는 약세.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인 홀딩스(-3.30%), 카니발(-2.96%),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2.90%) 등 크루즈주가 3% 내외 하락했고 델타 에어라인스(-1.74%),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1.85%),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0.81%), 제트블루 에어웨이스(-0.44%), 아메리칸 에어라인스(-0.83%) 등 항공주도 1% 내외 하락. 이외 에어비앤비(-1.45%), 익스피디아 그룹(-2.07%), 메리어트 인터내셔널(-2.09%),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1.54%) 등 여행, 숙박 관련주도 2% 내외 약세.

한편 델타에어라인스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급등하는 항공유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 수하물 요금을 10달러씩 인상한다고 밝힘. 앞서 지난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와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도 각각 위탁 수하물 요금을 인상했음.

반면 유가 상승은 에너지 관련주에는 여전히 강세 요인으로 작용. 엑슨 모빌(0.33%), 셰브론(+1.35%)를 비롯해 EOG 리소시스(+0.82%), 데본 에너지(+0.60%), 다이아몬드백 에너지(+0.63%) 등은 강세.

이외 개별 특징주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6.18%)는 전일 이사회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 승인한 가운데 총 자사주 매입 승인 금액이 15억 달러로 확대됨.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문 기업 아리스타 네트웍스(+5.85%)는 로젠블랫 증권에서 회사의 주요 AI 하이퍼스케일러와의 우호적 관계가 곧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방산주는 전반적 약세. 록히드 마틴(-1.60%), 노스롭 그루만(-0.76%), RTX(-0.25%), 보잉(-1.08%).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혼조: 단기물↓·장기물↑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은 하락하고 장기물은 상승하는 등 혼조세.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 당일을 맞아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오전 중에는 대체로 상승세. 다만 오후 들어 3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였고 오후 장 후반 중재국인 파키스탄 총리가 시한을 2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금리는 아래로 방향을 틀어 상승분을 줄이거나 하락 전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7bp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0.8bp 상승.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3.2bp 상승. 마감 이후 선물 시장에서는 단기/장기물 구분 없이 하락권에서 낙폭 확대.

달러 가치 2거래일 연속 하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2거래일 연속 하락.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321% 하락한 99.678을 기록. 뉴욕장 들어 하르그

섬 공격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 고조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달러인덱스도 강보합권에서 주로 움직임. 다만 파키스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이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음.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위원이자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인 피에르 분쉬가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이달 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여러 차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발언. 이는 유로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해 유로-달러 환율은 0.453% 상승한 1.1591달러를 기록. 파운드-달러 환율도 0.405% 상승한 1.3288달러를 기록.

야간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501.00원을 기록해 전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3원 20전 하락.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마감을 앞두고 달러 약세 압력이 강화되자 1,495.00원을 기록.

WTI 3거래일 연속 상승..금은 보합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3거래일 연속 상승.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4센트(0.5%) 상승한 배럴당 112.95달러에 마감해 종가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장 중 한 때는 배럴당 5달러 이상 급등하기도 함.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6월물은 배럴당 50센트(0.5%) 오히려 하락한 109.27달러에 마감. 조기 인도 물량이 더 높은 값을 받는 시장 구조 속에서 브렌트유 대비 WTI 가격이 강세를 보임.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전장 대비 4.7% 급등.

금값은 이란 상황을 주시하며 소폭 상승.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날과 같은 온스당 4,684.70달러에 마감했고, 현물 가격은 소폭 상승.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까지 17개월 연속 금 매입을 진행 중이며 특히 지난 3월 매입량은 최근 1년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